

# 「명사+の+명사」의 고찰 (2)

-- 사람명사+사물명사/사물명사+사물명사  
/사물명사+사람명사를 중심으로 --

全成龍\*

---

## 目次

---

0. 들어가며
  1. 선행연구
  2. A가 사람명사이고 B가 사물명사인 경우
  3. A도 B도 사물명사인 경우
  4. A가 사물명사이고 B가 사람명사인 경우
  5. 마치며
- 
- 

## 0.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일본어 교재를 보면 일반적으로 첫 도입단계에서부터 조사 「の」에 대하여 가르친다. 보통 이 조사 「の」에 대하여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 「これは わたしの 本です」와 같은 문장을 언급하며 여기에서의 「の」를 소유의 「の」라고 설명하며, 그 다음에 「わたしの ともだちの ゆうこ」와 같은 문장을 들며 이때의 「の」를 동격의 「の」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교재(저자)에 따라 「わたしのです」와 같은 문장을 들며 여기에서의 「の」에 대해 가르치기도 한다. 실지로 『e-뱅크 일본어(기초1)』(일본어뱅크)에서는 제 4과 「はじめまして」에서 처음으로 조사 「の」에 대하여 언급하며 (제 1과는 50音図/清音, 제 2과는 濁音/半濁音/拗音, 제 3과는 長音/促音/撥音 이므로 제 4과가 실질적인 본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음) 「~の~」에 대하여 「私の友達、金さんの恋

\* 청주대학교 부교수 일본어학

人、大学の先生、私の本、田中さんの家族」의 예문을 들고, 제 5과 「わたしのです。」에서 두 번째로 「の」에 대해 언급하며 「わたしのです。学校のです。日本のです。」를 들고 있으며, 제 7과에서 「の」의 세 번째 설명으로 「~の(3)」이란 타이틀 아래에 「兄のひろし、友達のたろう、社長のはやしさん」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또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문법1』(사람in)에서는 제 7의 문형으로 p.40~41에서 조사 「の」를 언급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경우  
机の上、英語の本、日本語の先生、ソウルの大学
2.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  
中国人の王さん、医者の兄、友達の田中
3. 소유격  
先輩の車、友達のお母さん
4. 명사상당  
これは鈴木さんのかばんですか。はい、私のです。(→<의>의 가방)

그런데 이들의 설명을 보면 『e-뱅크 일본어(기초1)』에서, 제 7과에서 「それは何の本ですか」의 대답으로 「日本語の本です」라는 예문을 들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의 [日本語の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문법1』에서는 조사 「の」에 대해 4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4번을 제외한 1번 2번 3번 모두 다 「명사+의+명사」 즉,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문법1』의 설명으로 하자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동격」을 나타내는 「中国人の王さん」「医者の兄」이건, 소유격을 나타내는 「先輩の車」「友達のお母さん」이건, 이들 모두 형태적으로 「명사+의+명사」로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것은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경우」로서 설명하고, 어떤 것은 「동격」이니 「소유격」이니 하며 문법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밖에 할 수 없다. 「私のです」와 같은 경우와 「私の書いた本」과 같은 경우의 「の」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조사 「の」는 형태적으로는 「명사+의+명사」로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조사 「の」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은 「명사+의+명사」에 대한 하위분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해 쓰여진 일본어 교재로서 『다락원 다이나믹 일본어 Step1』(다락원)이 있는데, 조사 「の」에 대해 제4과(p.45)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④ 명사+の

- 私の コップ [소유]
- 世界大学の 学生 [소속]
- 日本の お酒 [출처]
- 英語の本 [내용]
- 留学生の 李さん [동격]

그러나 여기에서도 예문만 들었을 뿐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 과인 제 5과에서 「先週の 土曜日は 休み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를 설명하면서도 여기 「先週の 土曜日」에서의 「の」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여기에서는 「留学生の 李さん」을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고,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문법1』에서도 「中国人の王さん」을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李さんが 留学生이라 할지라도 모든 留学生이 李さんが 아니기 때문이며, 王さんが 中国人이라 할지라도 모든 중국인이 王さんが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명사+의+명사」를 설명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조사 「の」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명사+의+명사」에 있어 「の」의 앞과 뒤에 오는 명사의 성격을 규정해야만 논리적이고 문법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사+의+명사」를 「A의 B」로 나타내기로 가정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대강 이야기 해보면, 「先輩の 車」 「私の コップ」 「先生の本」와 같이, A 자리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사람명사)가 오고 B 자리에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사물명사)가 올 때, 이 때 A 자리의 사람명사는 「소유자」를 나타내며 B 자리의 사물명사는 「소유물」을 나타내게 되어 조사 「の」는 「소유」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문법1』에서 설명하는 「友達のお母さん」은 소유가 아님.) 또, 「日本の お酒」 「ドイツの 車」 「アメリカの テレビ」와 같이 A 자리에 국가명이 오고 B 자리에 사물명사가 올 때 A 자리의 국가명은 「생산지」가 되며 B 자리의 사물명사는 「생산물」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락원 다이내믹 일본어 Step1』에서 설명하는 「日本の お酒」는 출처가 아님.)

이렇듯 「A의 B」의 조사 「の」에 대해 설명할 때 먼저 A명사의 특징과 B명사의 특징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A명사의 특징과 B명사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간단히 될 작업이 아닌 것을 알기에 여러 오류가 범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앞에서 「사람명사+의+사물명사」인 경우, 사람명사는 「소유자」를

나타내며 사물명사는 「소유물」을 나타내게 되어 이 때의 「の」는 「소유」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다른 대부분의 일본어 서적들도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先生の本」에서 이 때의 「の」를 「소유」로 해석을 해서 「선생님이 소유하고 있는 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先生の本」을 「작가」와 「작품」으로 해석해 「선생님이 쓴 책」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며(「ピカソの絵」 등이 여기에 해당 됨), 또 「선생님에 대해 쓴 책」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1)</sup> 이렇듯, 형태적으로 단순히 「사람명사+の+사물명사」라 할지라도 A와 B 두 명사 사이의 관계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결정되는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작품 속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A의 B」에 관한 연구의 두 번째로<sup>2)</sup> 「사람명사+の+사물명사」인 경우와 「사물명사+の+사물명사」 그리고 「사물명사+の+사람명사」인 경우에 한정해서 논하기로 한다.

## 1. 선행연구

### 1.1 鈴木重幸씨의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1972年)

#### (1) ものの属性の規定

1. ものの種類<sup>1)</sup>의 지정…… ばらの 花びら、かきの たね、自転車의 벨
2. 道具의 用途의 지정…… 汽車의 きっぷ、くだもの의 ナイフ、ごはん의 茶わん
3. もの의 材料의 지정…… 紙의 飛行機、ねんど의 お面、ブロック의 へい
4. もの、人의 状態의 지정…… あからがお의 男、でこぼこ의 道、和服すがた의 おかあさん

#### (2) もの의 所属先、もちぬしの 지정

図書館의 本、妹의 くつ下、学級의 花だん

#### (3) もの의 数量、ねだんの 지정

一ぱい의 水、三びき의 こぶた、十円의 えんぴつ

#### (4) 人間關係의 規準의 지정

わたしの おじさん、にいさん의 ともだち

1) 『日本語概説』(桜楓社・1989) p.102~103에 「夏目漱石の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夏目漱石の本となると、漱石の書いた本か、漱石の所有する本か、漱石について書かれた本か、はっきりしない。

2) 첫 번째 연구로 2008년 3월에 발간된 『日本語学研究』(第21輯)에 [「명사+의+명사」의 고찰]이 있음. 여기서는 「사람명사+의+사람명사」와 「사람명사+의+사물명사」에 대해 논하였고, 「사람명사+의+사물명사」인 경우를 8개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발표 이후 8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용례가 너무 많이 발견되어, 이들을 추가해 가필하였음.

(5) 動き、状態の種類指定

- 1. 動き、状態の主体の指定…… 火山の ばくはつ、しかの なき声、こびとの おどり
- 2. 動きの対象の指定…… 文法の 学習、自転車の 運転、庭の そじ

(6) 状況的なことからの指定

- 1. 場所の指定…… 横浜の 港、学校の 運動場、奈良の 大仏
  - 2. 時の指定…… 今週の こんだて、三時の おやつ、夏の あらし
- さらに「映画の話」「チューリップの絵」のように内容を指定するもの「ピカソの絵」「漱石の小説」のように作家をしめすもの、「次郎は おにいさんの 太郎と せみ とりに いった」のように、意味的に同格をあわす用法もある。

1.2 「ノ格の名詞と名詞との連語」

(『現代日本語の名詞的な連語の研究』所収・1994年)

이것은 「명사+의+명사」의 형태를 連語論적 観点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논문이다. 앞의 『日本語文法・形態論』의 내용도, 鈴木康之씨의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鈴木重幸씨 스스로 p.225에서 밝히고 있듯이, 「명사+의+명사」에 관한 연구는 1957년부터 鈴木康之씨에 의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1957년부터 쓰여진 논문들은 너무 오래되어 구하지 못하였으며, 1994년 이전에 쓰여진 논문들을 모아 집대성한 서적인 이것을 여기에서 선행연구라는 형태로 몇 줄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리가 있기에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カザリ名詞(전항명사를 鈴木康之씨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음)와 カザラレ名詞(후항명사를 鈴木康之씨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음)의 관계를 [關係的なむすびつき] [状況的なむすびつき] [規定的なむすびつき]로 3분류하고, 각각의 むすびつき 안에서 구체적으로 전항명사를 連語論적 입장에서 역할에 따라 하위분류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3 오현정씨의 連体修飾句の語順 一名詞同士の語順を中心に

(『日本学報 第49집』2001년)

이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쓰여진 논문이라기보다 鈴木康之씨의 연구<sup>3)</sup>를 모방·인용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오현정씨 스스로도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鈴木康之씨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또 사용하고 있는 용어 또한 동일하기 때문이다. 오현정씨는 또 다른 논문을 2006년에 발표하였는데, 2006년에 발표된 논문은 일본어와 한국어를 대조하였다는 것, 그리고 2001년 논문은 일본어로 쓰였지만 2006년의 논문은 한국어로 쓰였다는 것 외에는 논문의 내용적인 면은 2001년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해 대

3) 계간지인 『教育国語』(むぎ書房)에 여러 번에 걸쳐 시리즈로 발표한 것을 1994년 『現代日本語の名詞的な連語の研究』(日本語文法研究会)에 의해 집대성되었음.

조연구를 한 2006년 논문에서 한국어의 예문을 설명한 부분을 제외한 일본어만을 본다면, 2001년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sup>4)</sup>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것은 「명사+の+명사」에 있어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밝힌 「の」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の」에 선행하는 명사의 역할을 분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명사+の+명사」라는 형태에서 조사 「の」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 「の」의 앞과 뒤에 오는 명사의 성격을 규정해야만 논리적이고 문법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명사+の+명사」의 형태에 있어서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일본어 작품 속에 실지로 쓰인 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A가 사람명사이고 B가 사물명사인 경우

다음 예에서 보여지 듯 A가 사람명사이고 B가 사물명사이면 A는 [소유자]를 나타내고 B는 [소유물]을 나타낸다.

예1; 「……死んだんだ。三年前、俺のバイクの後ろ乗ってて。初めてこの世には取り返しのないことってあるんだなって、思ったよ。だから、妹大事にしてやれよ」  
(君といた夏)

예2; そのとき、強い風が吹いてきて朝美の麦わら帽子が飛んでいった。(君といた夏)

예3; 松原と憬子がなんでもないのはわかっている。それでも、松原の車から憬子が降りてきたとき、自分でも表情が硬くなっているのがわかった。(君といた夏)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소유자와 소유물이 아니라, [사용자]와 [사용물]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4; 看護婦は首をひねりながら病室を出ていった。夏目はひとり、潤のベッドをじっと見つめた。白いベッドは、窓から差し込んでくる夕焼けに赤く染まっている。(最後の恋)

4) 「일본어와 한국어의 연체수식어의 어순 -명사간의 어순을 중심으로-」(『日語日文學研究』 제58집, 2006년) 두 논문이 거의 동일하다고 논하는 이유는 두 논문의 제목과 목차 그리고 논문의 서술내용(본문 중의 도표와 결론은 동일함)까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며, (참고로 목차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는 2006년의 목차임] 1.はじめに(1.머리말) 2.考察方法(2.명사분류) 3.名詞の分類(3.수식명사 분류) 4.修飾名詞の分類(4.명사간 어순의 고찰대상) 5.名詞同士の語順(5.명사간의 어순) 6.まとめ(6.마무리)) 또 논문에 사용된 일본어 예문의 상당수(73개중 58개)가 동 2001년 논문에서 사용된 예문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5; 「なにを考えてるの？」

目の前に、深い茶色をしたマーヴの瞳があった。私のと自分のグラスにそれぞれワインを注ぎ足して、

「今夜はあまりのまないね」

と言う。(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예6; ふざける朝美をいさめようとした杉矢だったが、「あ、男と一緒に加奈子ちゃんだ！」

という言葉に本気で驚く。冗談だと分かると朝美の頭を叩いた。

「代ろうか」後部座席から入江が朝美のマイクを受け取り、代りに飲んでいた缶ジュースを何気なく手渡した。(君といた夏)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의 예4~6과 같이 [사용자]와 [사용물]로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A와 B의 관계가 [사용자]와 [사용물]이라기보다는, 문맥상 B의 [(용도의) 대상]이 A라고 해석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위의 예4~6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예7; 「引き込まれる出だしですね。字が大きくて読みやすい」

その本は子供の絵本以上におそろしく大きな文字で印刷されていた。(トリック2)

또, A가 사람명사이고 B가 사물명사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서는 A가 [작가]를, B가 [작품]을 나타내기도 하며,

예8; 宛名の几帳面に書かれた懐かしい文字を見て、裏をひっくり返すと、やはり差出人は村上だった。

その場で封筒を開けてみるとワープロで清書した研究論文が入っていて、『新しい僕の論文です。新たな試みです。ぜひとも君に読んでもらいたくて、送ります』とメモが添えられていた。(君といた夏)

예9; いつの頃からだったかなあ、多喜二の死んだ二月二十日に、人が集ま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

集まってくる人は、多喜二の小説を読んで、多喜二の死んだことも詳しく知っていて、わだしば大事にしてくれる。で、わだしは、ちらずしだの、ぼた餅だの作って来た人に食べてもらうの。(母)

예10; カナ子が裏庭で菊を採って、花瓶にいけ、二階に上がっていくと、川崎は窓に腰を下ろして、遠くの山を眺めていた。室は、それほど上等なつくりではないが、美保子の丹精

でよく磨かれており、住心地がわるくなさそうだった。その中に、机、本箱など学生道具が置かれ、ゴッホの絵や仏像の写真などが、壁に掲げられてあった。(若い娘)

문맥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 듯, 사람명사를 나타내는 A가 B의 [내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즉, 예11로 설명하면, 문맥상 예11의 [潤の写真]이란 潤이 찍은 写真(작가와 작품)도 아니며, 潤이 소유하고 있는 写真

(소유자와 소유물)도 아닌, 사진 속의 인물이 潤(내용)인 것이다. 다시 말해 B가 나타내는 사물명사의 내용이 A가 나타내는 사람명사인 것이다.

예11: 「潤、姉ちゃん、取り返しのつかないことしたのかな?」

病院介護の本を読んでいたアキは、結局集中出来ずに、潤の写真に向かって話しかけていた。(最後の恋)

예12: クリップで留めたそれらの詩篇に混じって、あおいの顔写真が一枚ある。自動車の免許取得の時に使った残りを貰ったもので、髪を短く切る前のもの、唯一長い髪をしている。(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예13: 勇気がなかった。会いたい。一目だけでいいから今の彼女を見てみたい。毎晩、ぼくは彼女を思っている。思いながらも、この思いが過去を覆すことができないような気がして、弱気になる。あおいの絵を描いた。一人きりの夜、真っ白な画用紙の上、彼女の記憶の線を無数になぞっ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또 다음과 같이 사물명사인 B의 [卵]가 사람을 나타내는 비유적 의미로 [修業中の人·まだ、その事で一人前にならない人]<sup>5)</sup>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14: 五年前に亡くなった曾祖父もそうだった。まったく血のつながらないH子を本当の孫たちより最恨した。

一年前から臥(ふ)せりながら曾祖母はすこし耄(ぼ)けてきたのか、孫たちの見舞いの品を皆、H子が贈ってくれたものと思い込んでいるらしい。

H子は小さなプロダクションに所属している女優の卵だ。(家族の標本)

예15: 「余計なお世話よ。ポリクリだか何だか知らないけど、まだ医者の卵なんでしょ。卵のままつぶれちゃうかもしれないんでしょ。そんな人にお説教されたくないわね」

アキは精一杯つぶって言い返す。(最後の恋)

그리고 다음 예문에서 보여지 듯 B가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낼 때에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지만,

예16: 私は、あまりの恥ずかしさに、その手紙、千々に引き裂いて、自分の髪をくしゃくしゃ引きむしってしまいたく思いました。(葉桜と魔笛)

예17: ふざける朝美をいさめようとした杉矢だったが、「あ、男と一緒に加奈子ちゃんだ!」という言葉に本気で驚く。冗談だと分かる朝美の頭を叩いた。(君といた夏)

예18: 一瞬沈黙した後、芽美は、なんてこというのよ、と言いながら目を大きく開いてぼくの首に力強く手を回してきた。

しがみついて離れようとしな。芽美は寝ぼけながらぼくの顔にまるで犬のようにキスをしてくる。頬が濡れて、思わず顔を背け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5) 林 巨樹『現代国語例解辞典』(小学館) p.772



다음 예문 19와 같이 B가 나타내는 신체의 일부분이 [最も信頼できる補佐役] 라는 의미<sup>6)</sup>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며, 예문 20과 같이 B가 나타내는 신체의 일부분이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 예19; 中野たちはズカズかと部屋に侵入し、二人を取り囲む。そこへ、長部が止めに入るが、長部も奈緒子の仲間として扱われてしまう。奈緒子、上田、長部、あわや磯か、と思っ たところへ、清水が現れた。  
 「お待ち下さい。この人たちのやったことは確かに許せません。しかし、みなさんを人殺しにす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どうでしょう、この者たちの処分は私に任せていただけない でしょうか」  
 吉子の片腕である清水の言葉には逆らえない。中野たちは、渋々引き上げていった。  
 (トリック 2)
- 예20; 「吉子様の代わりに、この山田奈緒子様は、八掛けの寄付金でみなさんの未来を占って さしあげると言っておられます」  
 矢部が奈緒子の左手に立ち、清水のように言った。(トリック 2)

그러나 B가 신체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이 신체의 일부분에 특 징짓는 요소가 포함될 때도 A와 B의 관계를, 위의 [전체]와 [부분]으로 보아도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 예21; 二人きりになると芽美はぼくをそこにおいて、先生とは反対の方向へ歩きだしてしまった。  
 「どうして君はそんなに子供なんだい」  
 追いかけ、彼女の横顔に向かって説得するように告げると、芽美は勢いよく振り返り声を 浴びせ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 예22; 光の中で、あおいの顔を見たことはなかった。あおいの寝顔には月明かりの印象しかな かった。青い影が顔の表面を包み込んでいる、静かな印象だけがかった。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 예23; あおいの泣き顔がいつまでも消えない。それが芽美と重なり、胸の奥をいっそう切なくさせ た。思い出したくない記憶だっ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또, B가 신체의 특정한 일부분이 아니라 신체의 전부를 나타내는 다음과 같 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며,

- 예24; 先生は**ぼくの裸体**を時々描く。仕事が早く終わった時などに、  
 「ジュンセイ、きょう体あいてるの？」  
 と小声で、他の弟子たちに聞かれないよう、誘ってくる。

6) 林 巨樹『現代国語例解辞典』(小学館) p.215

ぼくは先生の部屋で、言われた通りにポーズを作る。アトリエの天窗から差し込む灰(ほの)かな光の中、動くことのない静まり返った空気を皮膚呼吸しながら、ぼくはぼくの肉体が彼女に見つめられていることを喜ぶ。(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예25; 「無理なんかしてない」

そう言ってぼくは芽美の体にゆっくり覆いかぶさった。芽美の手が伸びてきてぼくの頬を包み込む。(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예26; もう何度も見たことがある景色の中にいた。そこが冬のセントラルパークだと認識できた瞬間、自分が夢の中にいることが分かった。目の前に母の死体が横たわっていた。雪が舞い、母は半ばそこに埋もれそうになってい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다음 예문과 같이 B가 사람의 체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일 경우도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예27; 朝美は静かに首を振った。シーツに朝美の涙がこぼれおちた。

入江はそっと左手を伸ばし、朝美の手を握った。朝美も可能なかぎりの力を込め、入江の手を握り返した。(君といた夏)

예28; 過去は苦痛や憎悪さえも美しく見せた。だからぼくはあおいを抱きしめながら流れ出る涙を止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ぼくの涙はあおいの肩を濡らしたが、彼女が泣いていたかどうかは分からない。(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예29; 怪我はつきものであった。僕はしょっちゅう怪我をしていた。一番酷かったのは社宅の隣を流れる下水を飛びきれず、コンクリで頭を切り、血だらけになって病院に担ぎ込まれた時であった。額から流れ落ちる血で前が見えなくなった。目も開かないし、顔は血でぬるぬるだった。生まれてはじめてみる自分の血に驚いて僕は気絶した。(そこに君がいた)

그러나 B가 신체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다음 예문과 같은 경우는 A가 B의 특징 또는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으며,

예30; 芽美は半身を起こすと、いやだな、と呟いた。

「この街に雨は似合わない。ミラノの方で降ってればいいのよ」

ぼくのところまでやって来ると、背後から抱きついてきた。その胸の膨らみとぼくの背中の中に彼女の硬い髪を感じる。彼女の波うつ黒髪は母親譲りなのだろう。大きな茶色い瞳も、つんと高い鼻も、東洋人顔の僕とは異なる。だれがどう見てもイタリア人の顔だ。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또 다음과 같은 경우도 A가 B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예31; イタリア人と日本人の血が混じりあって、彼女の骨格は僕のそれとは微妙に異なっていた。上品な鼻は小さくて形のよい唇の上にあった。大きく輪郭のはっきりした瞳は電球の明かりを受けて底の方からいっそう輝いて見えた。(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예32; 芽美はイタリア人の血を引きながら、全くイタリア語が話せない。小さい頃に母親と離婚したイタリア人の父親のことが心にずっと引っ掛かっていた。父親のことを聞こうとすると急に不機嫌になる。(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 3. A도 B도 사물명사인 경우

A도 B도 모두 사물명사인 경우는 다음에서 보여지 듯, A는 B의 [재료] 또는 [재질]을 나타낸다.

예33; 観光場所として、必ずバスが止り、新婚客が記念撮影する展望台の「三段壁」の手前、観光客のいかない崖の、木の繁みに、サっちゃんの赤いビニールのハンドバックが、ひっかかっていたそうだ。死体は海まで落ちないで、岩に砕かれてひっかかっていたんだって。二人、ばらばらに。(夜あけのさよなら)

예34; 御殿の前にいた大勢の鬼は、杜子春の姿を見るや否や、すぐにそのまわりを取り捲いて、階(きざはし)の前へ引き据えました。階の上には一人の王様が、まっ黒な袍(きもの)に金の冠をかぶって、いかめしくあたりを睨んでいます。(杜子春)

예35; 父と母が結婚したころハンムは現れた。男に捨てられたのだそうだ。しばらく「せまい、きたない」と文句をいいながらも家にいたが、ある日ふっといなくなった。母の鏡台の引き出しの中にあつたダイヤの指輪やプラチナのネックレスとともに一。(家族の標本)

그러나 다음 예는 A가 B의 재료 또는 재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A는 [원래의 사물]을 나타내고 B는 [변화된 뒤의 사물]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문맥에서 A와 B의 의미적인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예문의 [カボチャの馬車]는, 신데렐라가 타는 것이 호박이 마차로 변환 것이기에, 아마도 여기에서 유추되어 쓰이지 않았나라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예36; 確かに僕は思い込みが激しかった。思い込んだら最後、誰がなんと言おうと、そうならないと我慢ならなかった。  
大体、僕はずっと橋の下で拾われたと思い込んでいた。どこかの王国の王子なのだが、何かの事情で日本に捨てられた、と。だからいつかカボチャの馬車に乗った侍従さんたちが僕を探しにやってくる、と思い込んでいたのである。(そこに君がいた)

또, 문맥에 따라서는 다음 예문과 같이 A가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며, B는 A의 일부분을 나타내어 A와 B의 관계가 [전체]와 [부분]이 되기도 한다.

예37; 「え……?」私は思わず訊き返した。

「わたしの子どもです」Sさんはきっぱりいい、「私は妻のY子と若いころに結婚して二年まえ離婚し、今年になって再婚したんです」

「結婚したのも、再婚したのもY子さん?」

Sさんは眼鏡のフレームをひとさし指でずり上げて、「Y子は妊娠したから、いやいやに結婚に承諾したんです。ぼくは結婚したかったですけどね。彼女はまだ家庭に落ち着きたくなかったんですよ」(家族の標本)

예38;目をあけるとはだしの爪先がみえた。寒そうな白い爪先。人形の足、とマーヴの呼ぶ小さすぎる足だ。(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예39;さらに、今度は、一人の男が驚いて指をさした方向を一同が見ると、大広間の舞台の幕の上に掛けてある時計の針が勢いよく逆回転をはじめた。(トリック 2)

그러나 다음 예문은 A의 사물명사가 [악기]를 나타내며, B는 A를 연주하기 위한 [도구=부(속)품]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것들도 A와 B의 관계가 위와 같이 [전체]와 [부분]으로 성립하는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며,

예40; U子の思い出のなかに登場する父親の顔はいつも怒りといらだちで歪んでいる。

小学校の二年の夏休み、夕食を済ませてU子は木琴の棒でテーブルの縁(ふち)を叩いて遊んでいた。(家族の標本)

다음 예도 B가 A의 [부(속)품]인 것 같은데, 이것도 A와 B의 관계가 [전체]와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 예42~44와 같이 B가 있는 [장소(ありか)]를 A가 나타낸다고 판단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용례이다.

예41; 夏目は興奮してしゃべり続けているアキの目の前に立ち、頬を両手で軽くパンパンパンと三回叩いた。

「何すんのよ?」アキは驚いて目を丸くする。

「病気なんだ」夏目はアキの前に跪(ひざまず)き、ほどけていたスニーカーの紐(ひも)を結んでやりながらゆっくと言った。(最後の恋)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는 A는 B가 있는 [장소(ありか)]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42; 坂の上からギブ스를軀中にはめた少年を載せた手押車を押して、中年の看護婦が下りて来、僕を追いぬいて行った。僕はズボンの埃をはらってから軀を起した。僕は看護婦の肩が静かに上下するのを見、少年のよくブラシをかけた頭髮が、淡い金色に光るのを見た。(死者の奢り)

예43; わたしはポッと顔がほてった。壁の鏡をちょっとのぞいて、髪の乱れをなおしてから受話器をとった。そのわたしをパパとママが見ている。わたしは二人に背を向けて、受話器に耳を当てた。(石の森)

예44; 駅員室に入っても、男はあたりをうろつきまわりながら怒鳴り散らしていた。  
「おれは一発も殴っていないのに、このきちがい女がよぉー、おれ、明日結婚式なんだぜ」男は机の電話を取ってダイヤルをまわした。(家族の標本)

그런데 다음과 경우는 위의 예42~44와 같이 B가 있는 [장소]를 A가 나타낸다는 것과 같이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B가 있는 [장소]를 A가 나타낸다고 보다는, B가 나오는 장소(でどころ)를 A(이때 A는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냄)가 나타낸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위의 예42~44와는 다른 것 같다.

예45; 当日、父親は遅刻してきた。約束の十時半過ぎても現れない。家で眠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と思って額の冷汗を拭(ぬぐ)いながら電話したが、いなかった。(家族の標本)

예46; 私は肩と耳の間に受話器を挟みこんでてのひらの汗をTシャツの裾(すそ)で拭った。(家族の標本)

그러나 다음 예는 B가 나오는 장소(でどころ)를 A가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위의 예문과 동일하지만, A가 신체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점이 위의 예문과 다르다.

예47; 荷物を抱えておもてにでる。陽気のせいかな、街は人が多く、賑やかだった。バスや車の排気ガス、横切る人々、トラムの警笛。ドウオモ広場には、色とりどりの屋台がでている。(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A가 [用器]를 나타내고, B는 A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나타낸다.

예48; 吉子に促されて、奈緒子はおそるおそるコップの水を飲んでみる。その水は、塩辛かった。(トリック2)

예49; 「ママがあなたにすごく会いたがってるの」  
ダニエラが言う。鳶色(とびいろ)の瞳、ゆるくウェーブのかかったおなじ色の髪。  
「勿論パパも弟もよ。最近ちっとも顔をみせてくれないんですもの」  
「ごめんなさい。アンジェラのことでばたばたしてたから」  
私は言い、小さなカップのコーヒーを啜(すす)る。(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예50; 奇妙な夕食だった。

ベランダで夕方の風にふかれながら、私はからからと涼しい音をたててグラスの氷を揺らす。(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음 예는 B가 [用器]를 나타내고, A가 [용도]를 나타내는 것 같다.

예51; 「はい、お待ち！」

しかし、着いたところは小汚い飲み屋だった。店の主人がアキの前に焼酎のグラスを置く。いかにも近所のなじみ客ばかりの店で、またもやアキの恰好は完全に浮いていた。(最後の恋)

그러나 다음 예는 B가 [用器]는 아니지만, A가 [용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와 동일하다.

예52; 朝になったらペディキュアを塗ろうと思った。私は髪をかきあげ、立ち上がって食器棚をあけた。直径が十五センチほどある、大きなガラスの壺(びん)をとりだす。パスタ用の広口壺で、白いふたがついている。ワインのコルクを入れてあり、コルクは壺の三分の一ほどをみたくして、ふるとことこいい音がする。(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또, 다음 예도 B가 A의 내용(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예48~50과 동일하다. 그러나 A가 [用器]가 아니라는 점과, 또 한편으론 예37~39와 같이 [전체]와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기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예53; 「おれ、父親とお袋そろってどっかに行って遊んだり、旅行したって記憶がないんだ」 T가いった。Tの父親は、母親にいわせれば、「あんなに冷たいひとはいない」のだそうだ。「もしあなたがいなければ、とくに離婚してたんだけど」というのが母親の口癖だった。「海ぐらい行つたら? 夏休み」  
「いや、とにかく、父親は家にいなかったんだ」 Tは配られた弁当の鮭を箸でつつきながらいった。(家族の標本)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A가 B의 [내용(물)]을 나타내고 있다.

예54; カナ子が裏庭で菊を採って、花瓶にいけ、二階に上がっていくと、川崎は窓に腰を下ろして、遠くの山を眺めていた。室は、それほど上等なつくりではないが、美保子の丹精でよく磨かれており、住心地がわるくなさそうだった。その中に、机、本箱など学生道具が置かれ、ゴッホの絵や仏像の写真などが、壁に掲げられてあった。(若い娘)

- 예55; あたたかい日だ。お昼はセンピオーネ公園でサンドイッチを食べた。玉子のサンドイッチ。日本風の、マヨネーズで和(あ)えたゆで玉子だけのサンドイッチだ。これはマーヴも好きで、ときどきおやつに食べたがる。(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 예56; 老猫は私が箸でつまんだからあげを前脚ではたき落とし、ウーッと唸(うな)りながら食べはじめた。そして私が鮭のおにぎりに手をのぼすと、まだからあげが残っているのに飛びかかってきた。(家族の標本)

또, 다음 예문은 B가 나타내는 사물의 [종류(이름)]를 A가 나타내고 있다.

- 예57; 僕たち、寂しく無力なのだから、ほかになんにもできないのだから、せめて言葉だけでも、誠実こめてお贈りするのが、まことの、謙讓の美しい生き方である、と僕は今では信じています。常に、自身にできる限りの範囲で、それを成し遂げるように努力すべきだと思います。どんなに小さいことでもよい。タンポポの花一輪の贈り物でも、決して恥じずに差し出すのが、最も勇氣ある、男らしい態度であると信じます。(葉桜と魔笛)
- 예58; よく晴れた晩秋の午後で、川崎が腰を下ろしている窓のすぐ外には、葉が落ちつくした柿の木の枝が、黒い強いデッサンで中空に浮かび上がっており、赤い実が二つ、まるくつやつやと光って生(な)っていた。(若い娘)
- 예59; 唇をすぼめ、煙草の煙をまっすぐに吐く。私は微笑んだ。  
(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은 현재로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눈에서 흘리는 액체를 눈물이라고 하면, 「血の涙」라는 것은 실지로 눈에서 흘린 것이 [피]라는 의미인지, [피와 같은 눈물]인지, 아니면 [피가 섞인 눈물]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血の涙」를 흘리는 것이 예문처럼 「絵の中の武者」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血の涙」에서의 「血」와 「涙」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 예60; 「毎年、一月十一日が来ると、この絵の中の武者が血の涙を流すのです」  
奈緒子には信じられなかった。  
「これ、ただ塗料が溶けて流れているだけです。誰かのいたずらです」  
「おいたずらではございません。～」 (トリック 2)

#### 4. A가 사물명사이고 B가 사람명사인 경우

이 경우는, A가 사람명사이고 B가 사물명사인 경우와 A도 B도 사물명사인 경우에 비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용례가 상당히 적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

나 적은 용례 속에서도 A와 B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A의 사물명사가 B의 [외견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예61; 「朝美、そっちに戻ってるか?」入江は電話ボックスから杉矢に電話をかけたが、やはり朝美は帰っていない。

「あんな置き手紙残した以上、こっちには帰ら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

杉矢の言う通りだ。入江は「探してみるよ」と言って電話を切った。

「麦わら帽子のお姉さん、見なかった?」

入江は電話ボックスを出たところにいた子どもに尋ねてみる。(君といた夏)

예62; お重の中を見て、中野の顔色が変わった。中には、おかずの代わりに千円札と十円玉がぎっしり入っている。

「お前がやったのか!?」

中野は逆上して叫んだ。

「違いますよ。第一、あなたがどれを取るか、私にわかるはずないじゃありませんか」

見ると、他のお重には普通におかずが入っている。

オレンジ・ジャージの男が、御飯をよそおうとして、大きな炊飯釜(がま)を開けると、また驚きの声をあげた。炊いたはずの御飯が米になっている。(トリック2)

또, 다음 예는 B의 사람명사가 [직업]을 나타내고, A가 B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 사물(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예63; Hの父親はトラックの運転手だった。一ヶ月近く留守にすることも稀ではなかった。

(家族の標本)

그러나 다음 예는 이와는 반대로 B가 [A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예64; 「ほら。」

と嵐が示したそのグラビアには不器用に微笑む変に固いポーズの女性が黒いドレスを着て写っていた。下手くそなモデル……と思ってよくよく見ると、母だった。

「うわ、お母さんだ。」

私はびっくりして言った。

「若いだろう。」嵐はげらげら笑った。「モデルにむいてないのが丸見えな上に、生活能力もなさそうで、このままいと田舎に帰るのは目に見えているからあわれで囲んでやったんだって。親父(おやじ)が言ってたよ。」

「優しいんだかなんだかわからないわね。」私は言った。「じゃあ、どうして結婚してあげないのかしら」

写真の若い母はおっとりとし美しくった。(うたかた)



그런데 다음 예는 B가 A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B가 [A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 경우인 듯하다.

예65; 先生にスケッチされながら、あおいのことを時々考えてしまう。衣服を纏っていないせいで、心が大胆になればなるほど、その解放感の中、ぼくは過去を飛行し、あおいを思い出す。先生の絵のモデルをぼくが喜んでいる理由はそこにある。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그리고 다음 예는 A가 나타내는 사물이, 사물=장소(テレビ=放送局)로 쓰인 경우이며,

예66; 翌日、パラサイコロジーアカデミーに、奈緒子、上田、深見、岡本、小早川、矢部、石原と主要メンバーが集結した。『ワイドスクランブル』の撮影スタッフもいる。奈緒子たちは、テレビのADから、中継のために、各自胸に名前と肩書きの書かれたブランクカードをつけさせられた。(トリック2)

다음 예는 A가 [소지품]을 B가 [소유자(주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持ち主」로서, 단어 자체가 지닌 어휘적인 의미가 [소유자(주인)]를 나타내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문 속의 「お財布のあなた」에서의 「あなた」도 문맥상의 의미가 [소유자(주인)]를 나타내고 있다.

예67; 上田は声の主を確かめるために、電話の主が告げた池袋の『グリル』という喫茶店に向かった。奈緒子もいっしょだ。ドアを開けると、窓際の席に、髭(ひげ)が上に向いた袴姿(はかますがた)の老人が、食事をしていた。先日、上田が拾った財布の持ち主、ヤクザの組長ではないか。向こうも、上田に気づいて呼びかける。  
「オマエは上田！」  
奈緒子も気づいて声を上げる。  
「あ！江戸っ子！深見がサイ・トレイリングで見つけたお財布の持ち主！」  
上田は作り笑顔で、江戸っ子組長に近づいていく。  
「あれえ、お財布のあなたでしたか！名前まで覚えていてくださって」  
上田は空いている組長の前の席に座る。(トリック2)

그러나 동일한 예문 속의 「電話の主」에서의 「主」는 [상대(방)]를 나타낸다.

예68; 上田は声の主を確かめるために、電話の主가告げた池袋の『グリル』という喫茶店に向かった。(トリック2)

## 5. 마치며

우리나라의 일본어 교재를 보면 일반적으로 첫 도입단계에서부터 조사 「の」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분류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도 하며, 어떤 것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지나쳐버리기도 하고, 또 분류에서 오류가 있기도 하는데, 이것은 「명사+の+명사」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실 「명사+の+명사」를 설명하기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조사 「の」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명사+の+명사」에 있어 「の」의 앞과 뒤에 오는 명사의 성격을 규정해야만 논리적이고 문법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명사+の+명사」를 「Aの B」로 나타내기로 가정하여, A에 사람명사가 오고 B에 사물명사가 오는 경우와, A와 B 모두 사물명사가 오는 경우와 A에 사물명사가 오고 B에 사람명사가 오는 세 가지 경우를 작품 속에 실지로 쓰인 예문을 중심으로 A와 B의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문맥을 통해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A와 B에 오는 명사가 같아도 문맥에 따라 A와 B의 의미적인 관계가 다르다는 것은, 앞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품 속의 예문을 통해 [사람명사+의+사물명사]인 경우와 [사물명사+의+사물명사]인 경우, 그리고 [사물명사+의+사람명사]인 경우를 분석해 앞 뒤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논한 필자의 설명으로 이 세 경우의 두 명사간의 의미적인 관계가 모두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로, 작품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あっ、アイスクリームのおいさんだ!」와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アイスクリームのおいさん」이란, 문맥에 따라 [생산자]와 [생산물]의 관계가 되어 「アイスクリームのおいさん」의 의미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おいさん도 될 수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판매자]와 [상품]이 되어 아이스크림을 파는 おいさん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バスの乗客」「飛行機の乗客」와 같은 예문도 작품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두 명사간의 의미적인 관계가 예63의 「トラックの運転手」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 속의 더 많은 용례를 수집해,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두 명사간의 다양한 의미적인 관계를 문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더욱더 밝혀야 할 것은 금후의 과제이기도 하다.

## 【参考文献】

- 오현정·하스이케 이즈미·박행자 외(2006) 『다락원 다이나믹 일본어 Step1』, 다락원. p.45
- 오현정(2001) 「連体修飾句の語順」, 『日本学報 第49輯』, 韓国日本学会
- 오현정(2006) 「일본어와 한국어의 연체수식어의 어순」, 『日語日文学研究 第58輯』, 韓国日語日文学会
- 이미숙·김옥임·남득현 공저(2007) 『20문형으로 배우는 와이즈 일본어문법1』, 사람in, p.40-41
- 임창규·이누이히로시(2003) 『e-뱅크 일본어(기초1)』, 일본어뱅크, p.31. 37. 51
- 加藤彰彦·佐治圭三·森田良行(1989) 『日本語概説』, 桜楓社, p.102-103
- 鈴木重幸(1972) 『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p.225-226
- 鈴木康之(1994) 『現代日本語の名詞的な連語の研究』, 日本語文法研究会
- 林 巨樹 『現代国語例解辞典·第一版·第十刷』, 小学館, p.215. 772

## 【出典一覽】

- 芥川竜之介 「杜子春」(『蜘蛛の糸·杜子春』所収·新潮文庫)
- 石坂洋次郎 「若い娘」(『女同士』所収·角川文庫)
- 江國香織 『冷静と情熱のあいだ Rosso』 (角川文庫)
- 大江健三郎 「死者の奢り」(『死者の奢り·飼育』所収·新潮文庫)
- 北川悦吏子 『君といた夏』 (角川文庫)
- 北川悦吏子 『最後の恋』 (角川文庫)
- 太宰 治 「葉桜と魔笛」(『新樹の言葉』所収·新潮文庫)
- 田辺聖子 『夜あけのさよなら』(新潮文庫)
- 辻 仁成 『冷静と情熱のあいだ Blu』 (角川文庫)
- 辻 仁成 『そこに君がいた』 (新潮文庫)
- 蒔田光治·太田 愛·福田卓郎 『トリック2』(角川文庫)
- 三浦綾子 『母』 (角川文庫)
- 三浦綾子 『石の森』(集英社文庫)
- 吉本ばなな 「うたかた」(『うたかた·サンクチュアリ』所収·新潮文庫)
- 柳美里 『家族の標本』(朝日文芸文庫)

## 要 旨

この論文は「名詞+の+名詞」についての二つ目の研究で、特にここでは、「人名詞+物名詞」「物名詞+物名詞」「物名詞+人名詞」について述べたのである。初級の日本語のテキストを見ると、一般的に助詞「の」は、はやい段階から扱われている。そして、「私の本」のような例をあげて、「所有」だと説明し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しかし、「人名詞+物名詞」である場合でも、文脈によってはさまざまな関係的な意味合いが生じるのである。例えば、「私の本」の関係的な意味合いは、「所有者」と「所有物」になるが、文脈によっては「使用者」と「使用物」にもなり、また、「作家」と「作品」ともなるのである。さらに、場合によっては、「本」の内容が「私」である場合にもなるのである。このような観点から「人名詞+物名詞」「物名詞+物名詞」「物名詞+人名詞」という三つの場合を、作品の中から取り出した実例に基づいて、文脈によって生じる関係的な意味合いをここで明らかにしたのである。

キーワード；名詞の性格・人名詞・物名詞・助詞「の」・関係的な意味合い

투 고 : 2008. 5. 31  
1차 심사 : 2008. 6. 14  
2차 심사 : 2008. 6. 28

住 所 :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청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電 話 : 019-475-3338  
e-mail : immanuel@cju.ac.kr